

『韓国語教育研究』(第1号) 別刷

ISSN 2186-2044

【特集】

한국내 한국어교육 현황

김 중섭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11年9月

한국내 한국어교육 현황¹

김 중섭²

1. 머리말

국내의 공식적인 한국어 교육은 대학 부설 어학 기관에서의 교육을 시초로 볼 수 있는바, 1959년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된 이래 1969년 서울대 어학연구소, 1986년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년에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이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문을 열었다. 1989년에는 선문대 한국어 교육원이 설립되었고 이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1990년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1993년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을 시작으로 성균관대, 한양대 등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 관련 단체로는 국립국제교육원(전 국제교육진흥원)에서 1962년에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고 그 외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국립국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기타 사설 학원이나 시민 단체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사설 교육 기관의 효시인 명도원에서 근대 한국어 교육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고, 그 밖에 가나다 학원, 코리아헤럴드 부설 어학원 등 다수의 사설 학원이 생겨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에 회원교로 등록되어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¹ 김중섭(2010), '세계화 시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제 53 회 국어국문학회 전국 학술대회 -세계화 시대의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²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장 :
전자우편 jskim@khu.ac.kr 홈페이지 <http://jskim.khu.ac.kr>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 <http://www.iakle.com/>
.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회장 : <http://www.klic.or.kr/>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130 여개로 파악된다.

국내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 학습자, 교사, 교육 기관, 교재 등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학습자

국내 한국어 학습자수는 1988 년 ‘서울 올림픽’ 및 2002 년 ‘한·일 월드컵’ 등과 같은 국제 대회 개최와 한국의 경제·문화적 성장으로 인해 대외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다음은 한국어 연수 목적 비자(D-4-1)로 입국하여 국내 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수 현황자료이다.³

| 국적 | 아시아 | 북미 | 남미 | 유럽 | 아프리카 | 러시아 (연방) | 오세아니아 | 총 |
|----|--------|----|----|-----|------|-------------|-------|--------|
| 인원 | 15,564 | 85 | 91 | 179 | 138 | 91 | 19 | 16,167 |

* 2010 년 7 월 기준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을 찾아 온 만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와 학습 의욕이 국외 학습자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처럼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한국을 찾는 것으로는 향후 한국내 학교의 학위 과정 입학 목적,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 기업 취업 목적 등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는 유학생의 증가와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2004 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를 수립하고 2010 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 만 명 유치 를 목표로 했으나 2008 년 초에 이미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였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2008 년 8 월에 2010년 7만5000명, 2011년 8만5000명, 2012년 10만 명 등 단계적으로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

³ 법무부 통계 자료 : 유럽주계에서 러시아 연방 쪽은 별도 통계로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발전방안' 을 수립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또한 유학생 유치국가 다변화를 위한 각국 교류 및 국내 정책에 대한 노력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3. 교사

흔히들 교육의 성패는 교사에게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국어 기본법의 시행으로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공인된 교육 과정과 제도가 마련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며 긴요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교사 양성 과정이 과연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국어 기본법(2005년 7월 27일 제정)에 따르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은 크게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나뉘어 취득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이 중 비학위과정, 즉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원 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한국어 교원의 길을 넓혀 보다 다양한 층위의 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다고 본다. 교육에 있어 교사가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사 양성 역시 학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 양성 과정에도 변화가 필요한데,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성숙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현행 한국어 교육 분야에 있어 공식적인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은 운용되고 있지 않다. 교사 양성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학 기관 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경우 자체적인 교사 워크숍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를 대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수업 진행에 대한 점검 및 부분적인 정보 교환에 그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어 교원 전체를 아우르는 범기관 차원의 공식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지속되고 있는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 학습자의 다변화, 전문화를 비롯한 급변하는 교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연수 과정이 요구된다.

국외 한국어 교사의 경우 교사 재교육 차원에서 정부 각 소관 부처에서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성격의 연수 프로그램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 한국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및 이주 여성과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한국어 교사가 필요한 만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더불어 법무부에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불편 사항 해소 및 유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권유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상담 영역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어 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는 국립국어원의 지원으로 매년 2 차례 한국어 교사 재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원 공동 연수회’를 갖는다. 지난 2010년 7월에 ‘제 1 차 한국어 교원 공동 연수회’를 한국어 교육관련 특강 및 문화행사 등의 내용으로 성공리에 마쳤으며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제 2 차 한국어 교원 공동 연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4. 교육기관

4.1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 가입 현황을 통해 국내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경상 | 부산 | 울산 | 전라 | 광주 | 충청 | 대전 | 제주 | 총 |
|-----|----|----|----|----|----|----|----|----|----|----|----|----|-----|
| 기관수 | 29 | 13 | 1 | 6 | 19 | 12 | 1 | 12 | 7 | 15 | 11 | 3 | 129 |

* 2010년 8월 기준

그러나 이는 대학교에 속한 기관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설 학원 등의 교육기관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각 지역별로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그 외의 교육기관들까지 포함한다면 조사된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4.2 한글 보급 및 한국어 교육 기관 정책 담당 부서

현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관련 대상, 지원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부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짧은 기간 한국어 교육 분야가 압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음을 부인할 수도 없으나 더 큰 성장을 이루는 데 제약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한국어 보급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 사업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의, 협력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의 거시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다는 뜻이다. 현재 정부에서 U·세종학당을 통해 이들을 통합 관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국어 정책 및 한국어 교육 정책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한다. 한국어 관련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끌어갈 주체를 제대로 세워 정책적 지원 방향을 도출시키고 한글 보급과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책 담당 부서가 신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의 공자학원이 전 세계로 무섭게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강력한 지지 정책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참고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 담당 부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교육 관련 정부 주요 부서 및 추진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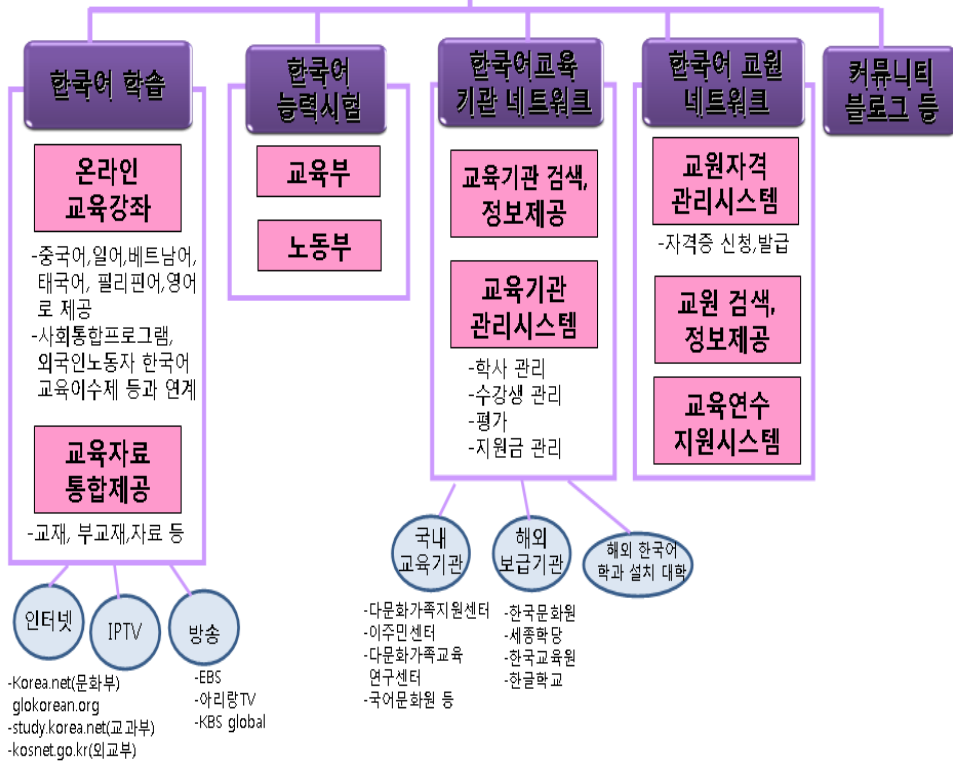
| 소관부처 | 기관명 | 관련 주요 업무 |
|-------------|------------|---|
| 교육과학 기술부 | 국립국제교육원 | 재외동포 초청 교육 외국인 초청 교육 입양인 문화 체험 연수 재외동포교육자 초청 연수 재외동포용 한국어교재 발간, 보급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학교 교재 개발 및 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
| 외교 통상부 |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외 대학의 한국어학, 한국어 분야 교수직 설치 지원 국외 한국어교육자 초청 연수 한국어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국외 보급 지원 한국어 초청 연수(한국어 펠로쉽) 한국어교재 개발(KLEAR) |
| |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 모국 연수 민족 교육자 초청 연수 한글학교 지원 재외동포 장학 사업 |
|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 한국어교수법 연수회 재외동포 교육자 학술대회 재외동포 한글학교용 교재 개발 |
| 문화체육 관광부 | 국립국어원 | 한국어교재 연구 한국어교사 연수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

| | | |
|-----|--------------------|--|
| | 한국어세계화재단 | 한국어 국외 보급 외국인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재 개발(범용 한국어 교재)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2002-4 년, 제 1-4 회) |
| 여성부 | 건강가족지원센터/이주여성 인권센터 | 이주 여성 한국어, 문화 교육 등 지원 사업(이주 여성 한국어 교재 개발, 방문 교사 제도 등) 등 |
| 노동부 | 외국인근로자(노동자) 지원센터 |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문화 교육 등 지원 사업(한국어, 문화 교육, 한국어교재 개발 등) 등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시행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제 5 회-현재) |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역네트워크와 연합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 교류되는 여러 의견을 모아 지역에 맞는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자 간의 교육 경험 및 자료 등이 활발히 교류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에서 U-세종학당을 통해 이러한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유사한 취지의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천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U-세종학당



5. 한국어 능력 시험 실시 현황

국내, 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세계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을 들 수 있다. 국가별, 지역별, 등급별 응시 인원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률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 처리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질적 현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주목적은 한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표준적인 시험 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1997 년 이전에는 한국어 능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가 없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별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료 증명서가 평가를 대신하여 왔으나 각 교육기관의 등급 판정이 다르고 교육과정이 달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한국어능력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자 기능이었으며, 이에 그간 한국어능력시험은 공인된 국가시험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도구로 큰 역할을 담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즉 한국어능력시험이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 목표, 교육 과정, 교육 내용 및 방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자 지침으로 작용하여 대학 내 어학 기관을 중심으로 개별 교육 기관에서 자체적, 독립적으로 실시해 왔던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통일성을 기하고 넓은 범주의 표준화의 길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1997년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주관으로 제 1 회 시험이 실시된 이후 1999 년부터 주관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어 18 회째 실시되고 있다. 2006 년까지 연 1 회씩 실시되었으나 응시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7 년 제 11 회부터 연 2 회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바, 1997 년 1 회 시험의 경우 4 개국 14 개 지역에서 실시되어 2,274 명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10 년 18 회에는 26 개국 107 지역에서 74,301 명이 응시하여 큰 성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어능력시험은 향후 컴퓨터를 이용한 CBT(Computer Based Testing)와 말하기 시험 개발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6. 교재

최근 한국어교육계에서는 그간 주류를 이루어 온 교육 기관별 통합 교재 개발에 이어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형식과 내용, 목적을 가진 교재가 출판되어 교사와 학습자의 실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어휘, 발음 교재를 비롯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별 교재, 이주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재, 학문, 직업 목적과 같은 특수 목적의 교재, 속담, 관용어 등의 문화 교재, 단기 교육용 교재 등이 개발되어 교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2009 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국내외 한국어 교재 백서’ 에 따르면, 2009 년 1 월 기준으로 파악된 국내외 발간 교재의 수는 33 개국 33,995 권에 달한다. 그 중 22.2%(714 권) 정도가 국내에서 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백서에서는 이 중 2,562 권을 대상으로 시기별 발간 현황을 제시하였는데 2,407(94%)권이 지난 10 년 동안 발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재 개발이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교재 개발 역시 계량화된 정보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다.

위 백서에서는 국내외 350 여 권의 교재를 대상으로 개별 교재에 대한 정보(표지 및 내부 이미지, 교재 유형, 제목 및 저자, 출판사항, 형태 사항, 단원별 쪽수, 내용 구성, 단원 내부 구성, 시각 자료의 제시 정도, 총평, 키워드)를 분석해 놓았는데, 이는 교재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개발자에게도 유용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개발한 교재 이상으로 목적과 소용에 맞는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와 같은 계량화 작업 역시 지속되어야 하며, 교재 개발자 역시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계에 필요한 교재의 유형 및 종류를 찾고 개발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근 한국어 교육계에서 학습자의 다양화에 따라 교재 역시 다양한 층위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재 개발 역시 다양화, 전문화의 길을 걷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인쇄 매체를 통한 교재는 이전 교재에 대한 계량화된 정보를 토대로 미개발 대상 분야를 찾아 개발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개척해야 할 분야가 전자 매체를 이용한 교재 개발이다. 특히 독학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학습 교재를 비롯하여 한국어 사전류, 한국어능력시험 수험서류와 같은 학습서들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학습할 수 있는 전자책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크다. 전자 매체에 익숙한 젊은 층이 한국어 학습의 주요한 수요층인 점 역시 이 분야 교재 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교재의 경우 웹 교재로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7. 한류의 영향

‘한류’는 1999년 11월 19일자 "베이징 칭니엔바오(北京青年報)"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며 이후 2000년 2월 중국 언론이 한국 대중문화의 열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확산된 신조어이다.⁴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 지역에서 시작된 한류는 이후 일본과 중국을 거치며 2000년대에 들어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한류는 한국어 학습의 큰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한류가 한국어 학습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도 한다. 과거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나 한국 가요 등에 대한 현지 관심 급증으로 한국 문화와 더불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까지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동남아시아까지 이러한 현상이 확대되었고 근래에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같은 중동 지역에 ‘대장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는 중동인들의 한국에 대한 문화적 관심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문화 콘텐츠 수출 및 한국 기업 이미지 상승은 물론 한국어 학습 열풍도 가져왔다. 또한 한류를 통해 각 지역에 유입된 한국 문화 콘텐츠들로 한국어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까지 조성되었다. 이희경(2006)과 강승혜(2008)에서 조사한 통계만 보더라도 중국과 일본 학습자 중 한류 드라마나 영화를 접해 본 경험은 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갖고 있었으며, 한국어 학습 목적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한류로 인한 한국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동남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며 이는 동남아 어느 지역을 가든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쉽게 볼 수 있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이에 따라 동남아 지역의 각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고 늘어나는 학습자들로 인해 사설 어학원들도 많이 생겨난 점만으로도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류의 영향력은 국내로의 어학 연수생 및 유학생 등을 끌어들이는

⁴ 이은숙(2004; 김동국(2006)에서 재인용), 이은숙(2002; 강승혜(2008)에서 재인용) 참조.

데에도 크게 작용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국내 한국어 교육이 급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한류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는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에서의 현지화 전략으로 진출한 한국 연예인들이 다수 성공을 거두고 외국 현지에서의 각종 박람회와 같은 국가적 홍보 노력까지 더해 한국어 학습자들을 국내로 끌어 들이고 있다.

과거 일부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찾아와 언어를 배우던 상황에서 이제는 다수가 한국어에 친근해짐에 따라 찾아오는 발길이 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승혜(2008), 한국어 학습자의 ‘한류(韓流)’에 대한 인식 비교 -일본 학습자와 중국 학습자의 비교-, 이중언어학 38, 이중언어학회.
- 국립국어원(2010),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국립국어원.
- 김동국(2006),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류의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10 집,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정숙(2005), 교육과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김중섭(2010), 세계화 시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제 53 회국어국문학회 전국 학술대회 -세계화 시대의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 김중섭(2010), (신 개정판) 한국어 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남기심(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회고와 전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 26, 연세대 한국어학당.
- 민현식(2005), 교사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5), 이중언어교육의 본질과 한국어교육의 과제, 이중언어학 29, 이중언어학회.
- 이희경(2006),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한 일본 대학생의 한국어 학습과 한류, 한국어언어문화학 3-1,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 정승혜(2002), 한국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 조항록(2010),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문화사.
- 황인교(2006),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부록 1> 숫자로 본 한국어 현황⁵

한글은 1443 년에 태어나 560 여 년간 한민족의 혼을 지켜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사가 짧으며 활력 있는 글자로 손꼽힌다. 2009 년 8 월 한글이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인 짜아짜아의 공식 문자로 채택되면서 그 자부심은 더욱 커졌다.

• 7742 만 8517 명

전 세계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수는 7742 만 8517 명으로 추산된다.

• 세계 13 위

전 세계 약 6900 여 개 언어 중 한국어는 모어 사용자수로 볼 때 세계 13 위이다. 참고로 모어 사용자 수 상위 5 위까지를 살펴보면 중국어, 힌두어,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 순이다.

• 세계 10 위 언어별 인터넷 사용자 수 3750 만 명으로 세계 10 위에 올라 있다.

• 25 만 1361 명 / 2177 개

2008 년 기준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는 25 만 1361 명이며 해외 한국어 보급 기관은 2177 개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아시아 대륙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늘면서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즐기는 흐름도 뚜렷하다. 신흥 경제 권역인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에 한국어 보급 기관이 급속히 늘고 있다. 권역별 보급 기관 수는 북미 1072, 독립국가연합 506, 아시아 225, 일본 142, 유럽 115, 중남미 75, 중동·아프리카 42 개 순이다.

• 12 만명

2009 년 아시아권에서 한국어능력시험(KLPT)에 응시한 학생 수는 12 만 명, 이중 9 만여 명이 합격했다. 이는 2005 년에 비해 4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06~2007 년 한류 열풍이 큰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 3399 권

국내외 한국어 수강생을 위해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33 개 국어 3399 권에

⁵ 국립국어원(2010) 참조.

달한다. 이에 따른 한국어 전문 교사 수요도 늘고 있다.

- 1000 명

최근 3~4 년간 ‘한국어 교원자격 심사’ 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 수는 1000 명이다.

- 192 억 원 / 52 억 원

2010 년 문화관광부의 국어 분야 전체 예산은 192 억 원으로 2005 년에 비해 1.45 배 증가했다. 이 중 한국어 보급 예산은 52 억 원으로 2005 년 대비 2.45 배 늘었다. 전체 예산 증가폭보다 한국어 보급 분야 예산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부록 2> 한류의 이모저모⁶

1 세대 한류의 진원지는 일부 댄스 가수와 ‘겨울 연가’ 를 대표로 한 드라마였다. 하지만 2009 년 말부터 가요, 뮤지컬, 연극 등으로 장르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에서 상연되는 뮤지컬 ‘궁’ 은 해외 팬들의 예매율이 전체의 50%를 넘어 섰다. 이는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유노윤호가 주연을 맡았기 때문이다.

지난 8 월 일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룹 소녀시대의 음반은 발매 첫 주에만 4 만 5 천장이 팔리는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는 과거 ‘꽃미남’ 으로 상징되던 남성 스타의 영역에서 벗어나 여성으로 한류의 파장이 넓어 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류를 즐기는 연령대도 드라마를 즐겨보던 30, 40 대 여성층에서 벗어나 연령대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전 계층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한류는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터키, 이집트 등 이슬람권, 루마니아 등 동유럽, 중남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⁶ 2010 년 9 월 24 일자 매일경제 참조.

2세대 한류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1세대 한류의 전성기였던 2005년 콘텐츠 산업 분야 총 수출액은 13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였다. 수출액은 2007년까지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2세대 한류의 시작인 2008년부터 늘기 시작해 2009년에는 27억 달러(약 3조 1000억 원)를 넘어섰다. 2010년에는 30억 달러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된다.

한류의 외연 확대는 예능 상품을 뛰어 넘어 게임 캐릭터 등 관련 산업은 물론 한국 역사, 한글, 음식,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한류는 그 자체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이미지 개선이라는 가치를 창출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韓国語教育研究 創刊号 (第1号)

2011年9月15日 発行

発行者 姜 奉植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161-853 東京都新宿区中落合4-31-1

目白大学外国語学部韓国語学科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文慶喆・金鉉哲・李善姫・宋貞熹・柳朱燕

印刷所 (株)ENTERPIA PRODUCTION